

설교제목: “예수님은 길이시다”

설교본문: 요한복음 14 장 6 절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다.

그 길은 어떤 목적지 때문에 만들어졌다.

우리는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게 가게 된다.

좋은 길이란

빠르게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한다.

평탄하고 덜 힘들며 많은 물건을 옮길 수 있다.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길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다나 강에도 물길이 있다.

공중에도 하늘 길이 있다.

어느 길이든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기에 길이 생겼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

그 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주목해 보자.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헬라어 본문을 보면, 그냥 길, 진리, 생명이 아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곧 관사가 붙어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다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분명해진다.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이다.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길, 진리,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생명임을 알아야 한다.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만나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

최근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와 그것들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처음엔 당황한다. 그래서 사용해 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매뉴얼을 찾아 읽게 된다.

그러나 최근의 발명품들은 아무리 정교하고 고가의 물건이라도 한 삼일 먼저 보면 대충 쓰는 법을 알게 된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때도 있다. 그래서 무언가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몇 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었다.

지금은 누구나 디지털 카메라로 아주 멋진 사진 작품을 찍을 수 있다. 그러나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는 고급 카메라 일수록 사용하기가 까다로워 전문학원과 책을 탐독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까다로우면 요즈음은 외면 당한다.

그래서 몇 가지 기초 작동 법만 알면 2, 3일 내에 거의 다 알 수 있도록 대부분 만들어 놓는다.

요즈음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편하다.

간단한 지식과 신앙생활을 위한 몇 가지 지침과 안내만 받으면 신앙인이 된다.

종교는 달라도 사람들이 쉽게 종교인이 되도록 비종교인들에게 다가간다.

자신들의 전통과 가르침 그리고 생활을 현대인에게 맞도록 재해석하고 재 설정하여 접근한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

뭐 종교가 다 그렇지! 양심적으로 살며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에 가게 되지!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개신교를 믿든 나만 바르게 살면 되지.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 종교 하나 가져 볼까? 어떤 부담 없는 종교를 택할까? 어떤 재미 있는 종교를 택할까?

어떤 종교를 택해야 도움을 받고 활력을 얻으며 이 세상 사는데 자신감을 얻을까?

구원이라는 말은 외면 당하고 축복이란 말을 사람들은 더 선호한다.

하나님 나라는 잘 모르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영광을 얻으며 재미 있게 사는 길을 찾는다.

그러나 구원 받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분이 열어 놓으신 길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쉬울까?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가는 나라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 또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찾도록 안내해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은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때만 길이 보이고 그 길을 갈 수 있으며 그 길 끝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기타 여러 종교 스승들이 나름대로 구원을 위한 길을 찾았다고 말하며 또 그 길을 후손들에게 안내해 주었다.

심오할 수 있다. 놀라운 정신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도 한다.

요즈음 이단들이 극성이며 대세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거짓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단에 빠진 자들은 모두 다 자기들이 구원의 길을 찾았다고 말한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라고 소개할 만한 무언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새로운 세상을 이해한다.

사도행전 4: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따라서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수고하는 우리들은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쉽을 얻으리니

11: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운다.

요즈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을 위한 길이라고 가르치면서 왜 유일한 길인지 제대로
알려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길로 보고자 한다면 버릴 것, 포기할 것, 힘쓰고 애쓸 것이 다르다.
다른 길을 버려야 한다.

다른 길을 포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나의 길이요, 내가 힘써 가야할 길이다.

그런데 이 세상 것 좋아하며 잔뜩 움켜쥐고 더 쥐고 그 일에만 힘쓰고 애쓰면서 예수 그리스
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로 자기 인생 길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에서 예수 그
리스도의 이름만 부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자.

왜 갈릴리 지역에서 이 세상 귀족들이 아닌 우리들을 찾아 만나셨는지 알자.

왜 번영의 예루살렘 지역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알자.

왜 부활하신 후,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셨는지 알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이 되는 법을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다.